

G2 환율전쟁과 희생양



자 상 국 역
관망과 훈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를 이끌 ‘무역 차르’로 점찍은 인물이다. USTR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내내 USTR을 이끌었을 정도로 트럼프와는 호흡이 맞다. 트럼프가 이번 집권기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의 역할은 1기 때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1947년생이니 올해 77세이다. 로스쿨을 졸업했고 관직을 맡지 않을 때는 70세가 넘어서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워싱턴 D.C.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변호사이자 협상 전문가로 통상분야의 대표적 ‘매파’로 통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을 압박해 무역적자 감축과 국내산업 보호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을 설계 및 진두지휘했고 세계무역

기기구(WTO)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340억달러의 관세를 선제부과하는 등 대중국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플라자합의를 연상케하는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의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경향과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는 초고율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플라자합의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환율전쟁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때의 경력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그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이다. 그는 30대 중반인 1981년 하원 금융위원회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곧이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USTR 부대표를 지냈다. 무려 40년전에 당시 미국 경제를 추월할 기세였던 일본을 슈퍼 301조로 대응하며 굴복시킨 장본인이다. 이때 미국시장을 휩쓸던 일본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고사위기의 자국내 관련 산업을 지켜냈다는 평을 받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압박이 중

국만 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 식 통상관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를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당으로 여긴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최우선이다. 지난해 444억달러나 되는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주요 타국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쩌면 라이트하이저를 앞세워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을 중국과의 환율전쟁에 앞서 시범케이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세기 이상 통상협상 전문가로 살아온 그가 다시 등판하는 만큼 대어를 잡기 위해 만만 한 상대를 골라 먼저 손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상황은 2019년 1차 대중 무역협상때보다 훨씬 괜찮다. 당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상을 동시 진행했으나 지금은 동아시아 쪽에 전력을 모두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측 입장도 위안화 절상이 현 경제상황에서 나쁘지만 않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경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3%선에 그치는 반면 내수부양이나 외자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를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행보가 시급해졌다.

/skc8472@metroseoul.co.kr

‘산업의 쌀’ 철강, 위기감 고조… 정부 팔 걷고 나서야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계가 철강업황 부진과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국내 철강업계 약대산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가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현대제철은 철강업황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경북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전체를 셧다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2공장 근무자들은 회사와 협의를 거

쳐 다른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조624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다. 순손실은 16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포스코는 최근 철강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 노조 리스크 등 잇따른 겹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업황 부진,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 일본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철강 부문에서 포스코 3분기 실적이 매출 9조4790억원, 영업이익 438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39.8% 감소했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할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 업체를 방어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철강은 상황이 다르다. 국내 철강 업계도 미국 수출 물량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철강 쿼터 부과 대상국으로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68만 톤의 철강만 수출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우리 철강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친구와 여행계획이 생긴다. 48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60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72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4년생 자질한 것에 신경 쓰다 소탐대실하게 된다.



37년생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49년생 늦도록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61년생 일이 잘 풀리는듯하다 고인다. 73년생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8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난.



38년생 사소한 씹씹이에도 이해관계가 우선하여 실망. 50년생 건강하게 베풀 능력에 있는 것에 감사. 62년생 태양은 떠 있는데 내키지 못한다. 74년생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86년생 정확한 일 처리를 위해 항상 문서로 작성.



39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 5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63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얻기 좋은 날. 75년생 상대를 의심부터 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아보라. 87년생 원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40년생 어제의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52년생 운기가 좋으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64년생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이니 신중하게. 76년생 친구의 이상에게 감정을 보이다가 체면을 구길 수. 88년생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41년생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기분 좋은 하루. 53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5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한 면에 치중해서 결론 내리지 말도록. 89년생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42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은 꼭 확인. 54년생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하루. 66년생 병도 약도 내 손안에 있다. 78년생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임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된다. 90년생 동업자와 서로 의논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지녀야 이득이다.



4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55년생 당장 성과가 없어도 계속 노력하라. 67년생 머리는 좋아으나 결과는 좋다. 79년생 독서와 직선은 출세와 풍요로운 삶을 기약하는 단초. 91년생 오늘 즐거우니 내일이 기다려진다.



4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56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일을 만들지 마라. 6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당연하다. 80년생 말실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양보. 92년생 약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한다.



45년생 짙은 보라색이 행운을 부른다. 57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69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81년생 깨끗하다고 너무 치우치면 위험이 따르는 게 세상사 이치. 93년생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룬다.



46년생 발전이 없어도 오늘은 현상 유지가 최선. 58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도 유의하라. 70년생 걱정이 해결되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 82년생 사랑을 하려면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94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



47년생 두서없는 행동으로 완파를. 59년생 여행가고자 하는 곳에 도적이 있으니 미리 체크를. 71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83년생 종일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95년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행동해야 결과를 얻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끝없는 욕심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사주에 재물이 넘치는 사람이 있었다. 전문직으로 일을 시작한 젊은 시절부터 상담을 하면서 운세를 자주 묻곤 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법인을 만들어 경영하는 것이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올 사주이기에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보라고 일러줬다. 계획했던 대로 법인을 시작하더니 운세의 흐름을 보면서 사업의 강약을 조절했다. 탁월한 운영 능력에 운세의 도움까지 받아 재물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화목한 가정에 아이들도 잘 자라서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다. 만족하며 살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자기 사주의 관운을 알고 싶다고 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갔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이다. 관운이 아예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뻔한 결말이 보이는데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은 욕심에 끌려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쪽에 인맥이나 기반도 없이 공천을 받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누가 봐도 공천이 어려워 보였는데 혼자만 자신감이 넘쳤다. 결국은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었다. 가족들만 대까지 무시하고 시작한 일이라 집안엔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균열 위기가까지 몰렸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국회의원에게 네 번이나 출마한 사람이 있다. 온 집안에서 다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이십 년에 걸쳐 논팔고 발 팔아 출마한 결과는 비참했다. 그 많던 재산을 거의 다 날렸고 집안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뭘든 시작전 나에게 주어진 운세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저마다 타고나는 기운이 있는데 얻을 수 없는 것에 욕심을 내면 불행을 부른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욕심내지 않는 게 명리학에서 일러주는 인생 현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5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클러스스도쿠110

중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4		
			4		8	5		
8		4						3
5				4			8	2
7	4			7		9		
3					8			6
		7	8		5			
		2		6				1

1	6	7	2				5	
			4					1
	4			1				7
		9				5	8	
	2	3		8	6			
7	8					1		
6			4			7		
9				3				
4			9	7	3		6	

1	2	8	7	9	8	2	9	6
6	9	8	9	2	8	2	1	7
7	9	2	1	2	6	9	8	8
9	8	6	2	8	9	1	7	2
9	7	1	6	8	2	8	2	9
2	8	2	9	7	1	6	8	9
8	1	9	2	9	2	7	6	8
2	9	8	6	7	8	9	1	1
8	6	7	8	1	9	9	2	2

9	2	8	2	6	9	1	7	8
9	1	7	9	8	8	2	2	6
8	6	2	2	1	7	9	8	9
8	7	1	6	9	8	2	2	9
6	2	9	8	9	8	2	1	7
2	8	9	7	2	1	6	9	8
2	8	6	1	8	9	7	9	2
1	9	2	8	7	6	8	2	2
7	9	8	2	2	2	9	6	1